

영암군, 지속가능 축산 실현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 및 소비자 신뢰 확보

영암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 및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가능한 축산실현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확대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3월에는 화산면 사무소 회의실과 신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존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지 농가와 인증 희망 농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 안내와 인증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권역별 교육에는 (주)참사랑친환경 인증센터 조익태 실장, 농업회사 법

인 제이케이(주) 조양도 팀장을 초빙해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축산물의 필요성, 친환경 축산물 인증절차, 인증 표시 내용 및 위반 시 제재 내용, 인증변경 사항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 전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영암군은 유기축산물·무항생제 축산물 등 친환경 축산 인증 확대를 위해 신규 인증 농가에 대하여 인증 수수료와 분석비용 등을 농가당 200만원 내외의 인증비를 지원하고, 인증 유지농가는 가족 출하 장려금을

호당 1백만원 지원 등 총사업비 3억 5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축산분야 지원 사업 신청 시 친환경 인증 농가는 우선순위로 대상으로 선정하여 농가에 혜택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축산 실현을 위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공급 및 소비자 신뢰 확보, 축산 농가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많은 축산농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곡성세계장미 축제’ 개최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장미를 한 곳에서 보려면 곡성군을 기억하자.

곡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기차마을 내에는 1004 장미공원이 있다. 4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단일 장미원으로는 최다 품종인 1004종의 장미가 식재되어 있으며, 해마다 5월 중순부터 세계장미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간 수억만 송이 장미 향연이 사랑의 큐피드 화살처럼 방문객을 매혹할 예정이다. 다채로운 향기를 뿜어내는 형형색색의 서유럽풍 장미 사이를 거닐며 관람객들은 장미의 화려한 색으로 물드는 감동을 맛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전

국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장미 축제와의 차별화를 위해 ‘골든로즈’를 콘셉트로 변화를 시도한다.

골든로즈 포토관에는 상상 속의 황금장미 조형물과 오브제 등을 전시하고, 잔디광장 등 축제장 곳곳에도 골든로즈를 모티브로 하는 포토존이 조성될 예정이다.

축제를 찾은 연인, 친구, 가족들은 장미꽃의 재래와 꽃향기를 온전히 느끼면서 인생샷도 건질 수 있다.

또한 축제 기간 중 매일 14시부터 16시에는 행운의 황금장미 이벤트를 통해 순금 한돈의 장미를 가져갈 기회도 제공한다.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장미축제인 만큼 이색적인 컬러 이벤트도 진행된다.

곡성=김광휘 기자

강진군, 영농철 현장방문 통한 영농기술 지원

새벽영농기술지원단 운영...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파악을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새벽 영농기술지원단’을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새벽영농기술지원단’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중심으로 부서별 6명을 편성해 매주 금요일 새벽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상반기 지원단을 오는 6월 28일까지 운

영할 예정이다.

새벽영농기술지원단은 대구면과 마량면 소재의 옥수수, 화훼 농가 등을 방문하여 농가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농가 불평이 해소되도록 힘쓰고, 재배기술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통해 농가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2019년 1월 1일부터 집행시행된 PLS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아직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농가가 허용되지 않은 농약사용으로 추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드는 시기,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새벽영농기술지원단’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며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교통사고 줄이기 등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

진도군이 최근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해 자치단체별 안전 수준을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로 세분화해 나타낸 수치이다.

군은 화재 분야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진도19안전센터가 주관, 화재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소화시설 주변 불법 주차차 근절에 집중하고

있으며, 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설치와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살 분야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고독사 방지, 농약 보관함 보급, 자살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 분야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확대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정기 접종 등 감염병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또 자연재해 분야는 자연재해위

험지구 개선사업과 함께 소화전 정비, 예방시설 정비, 예방대책 등 추진하고 범죄 분야로는 진도경찰서 주관으로 5대 범죄(강도, 살인 등)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안전지수 5등급으로 가장 낮은 교통사고 분야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으로 진도경찰서와 협업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홍보, 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새생명 살리기’ 친환경 수산물 유통 업무협약

군·장흥군수협·새마을지도자 총북협의회 3자간 협약



장흥군은 지난 3일 장흥군수협, 새마을지도자 총북협의회와 3자간 친환경 수산물 유통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총북협의회 지도자 33명이 장흥군을 방문했다.

장흥군과 장흥군수협은 업무협약에서 ‘새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

할 예정이다.

새마을지도자 총북협의회는 장흥군의 우수한 수산물을 구입하고 널리 홍보하는 데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업무협약에 담았다.

장흥군은 2008년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무산된 양식 선포하고 김양식에 사용되던 산(酸)을 전면 금지했다.

햇볕에 노출시켜 김의 잡태를 제거하는 친환경 양식 방법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무산 김양식 11년이 지난 현재, 낙지, 키조개, 매생이 등 장흥지역특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장흥군 해양생태계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2017년에는 장흥군 전 해역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국 최초 장흥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새생명살리기’ 우수 실천사례로 꼽히고 있다.

새마을지도자 총북협의회는 업무협약식과 더불어 ‘새생명 살리기’ 운동 실천사례 견학을 위해 장흥 무산김 생산지 및 공장 등을 방문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장흥군 친환경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다양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미래 환경을 지키고 아름다운 자연을 살리는 ‘새생명 살리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송수빈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